

# “더디지만 나아가는 역사... 촛불집회서 희망 봤다”

지난 14일은 6월항쟁을 촉발시킨 고(故) 박종철 열사의 30주기였다. 지난 2014년부터 고봉총림 백양사 방장을 맡고 있는 지선 스님은 1987년 6월10일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후보 지명 무효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6월항쟁 전면에 나서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불교계와 사회운동 현장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는 일이 드물었다.

지난 12일 백양사에서 지선 스님을 만나 그동안의 생활과 일선에 몰려나 지켜본 촛불집회, 정치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지선스님은 “먼저 미안한 마음이다”며 입을 열었다.

“가끔 ‘왜 예전처럼 만나서나’는 말을 듣습니다. 6월항쟁 시절에는 대학생들에게 국기와 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 실천을 하라고 당부하곤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몸일 때 활동을 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끝까지 하지 못하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스스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지선 스님은 지난 1999년 위암 수술을 두차례 받고 현재 지병(당뇨)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지선 스님은 “하루에도 수십번 집회현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학생들과 맨 바닥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는 등 무리했던 생활이 나이를 먹은 지금에 와서야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며 “건강 뿐 아니라 재야활동을 하며 승려로서 불교계와 백양사도 잘 돌보지 못한 점도 고려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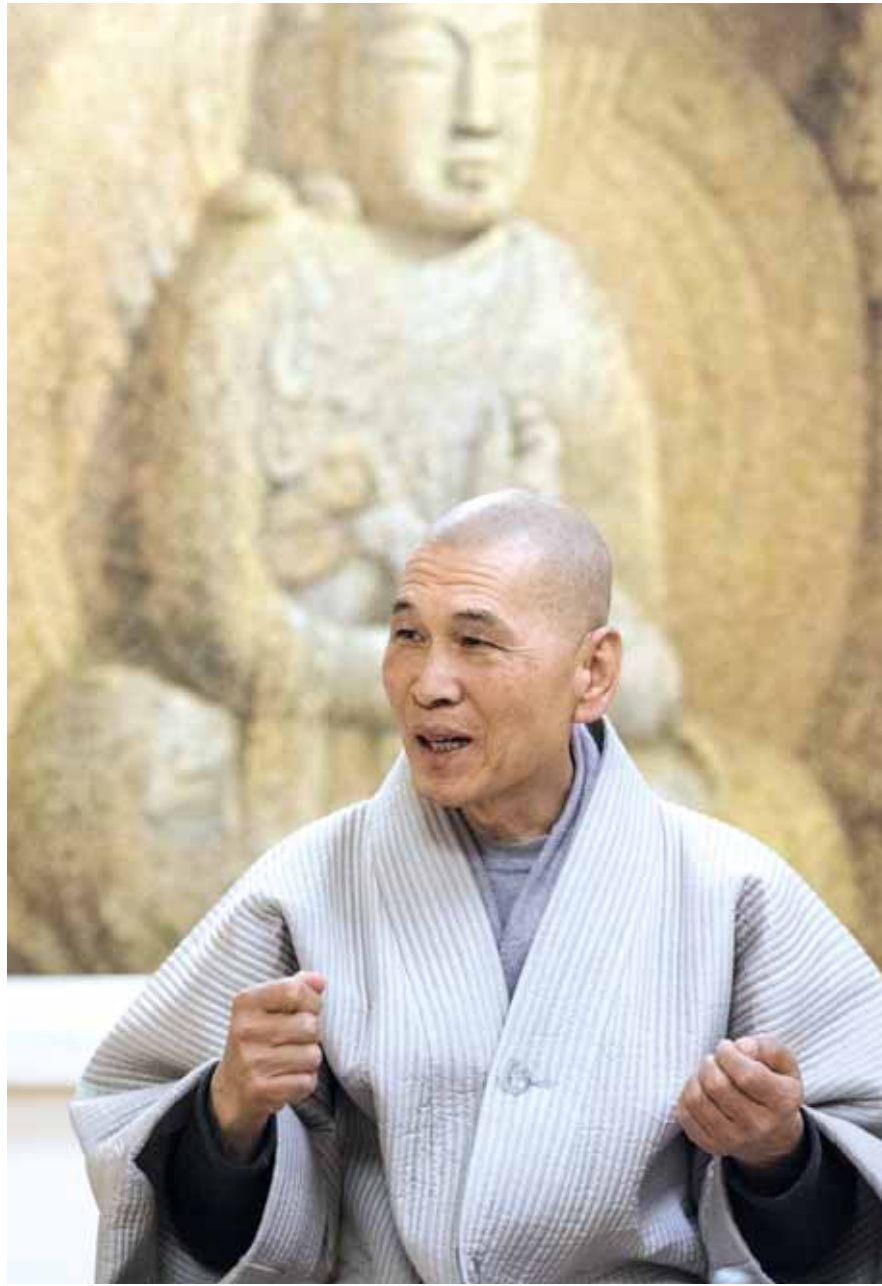
또 김형삼·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며 인권을 탄압하는 시기가 지나갔다는 생각도 작용했다. 이어 촛불집회에 대해 말을 꺼내며 “우리 같은 옛 사람이 나설 때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누군가 나서 사람들에게 운동권 의식을 전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머리 속 지식이 아닌 온 가슴과 온 몸으로 뜨겁게 생각을 보여주며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안거 동안 서울 광화문 집회현장을 찾아가 몰래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6월항쟁 동지들을 만났는데 절대 마이크를 듣거나 깃발을 잡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언어와 표현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을 뿐더러 옛 운동권 사람들이 나서는 집회 본질이 흐려집니다.”

그는 촛불집회에서 ‘희망’을 봤다고 이야기했다. 국가와 집회참가자 모두 예전에 비해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6월항쟁 시절 위험하게 느껴진 집회는 유서를 써놓고 갔습니다. 화염병과 돌, 폭력이 난무하던 예전을 생각했을 때 요즘 운동을 보면 부러워요. 물론 집지기 변한

## 6월항쟁 이끈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신년 인터뷰



**화염병·돌 난무했던 항쟁, 성숙한 시위문화로 승화  
종단 개혁 힘쓰며 건강 문제 겹쳐 사회운동 현장 떠나  
국가보안법 등 철폐할 수 있는 참신한 정치인 필요  
백양사 스님·신도 함께 운영하는 공동수행체 실험중**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레 좋은 쪽으로 변한 거겠죠. 역사는 더디게 흐르는 법입니다.”

지선 스님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도 ‘아쉽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독신 생활을 하는 신부와 스님은 정서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직설적이고 실천도 열심히 하신 조 신부님과는 소위 죽이 잘 맞았다. 살아 계셨더라면 함께 뭔가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가 일어난 배경에는 ‘수저론’,

‘오포세대’(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주택 구입 포기), ‘헬조선’ 등 국가에 대한 실망이 자리잡고 있다. 지선 스님은 “미리 자신의 처지를 규정짓고 자기 계발을 게을리 하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전에서 용이 나오기는 힘들지만 용이 될 자질을 가진 사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사회 일터와 살터가 망가진 건 아니고 개발시킬 여건이 남아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생각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그도 패배의식에 빠져 퇴속을 생

각했던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성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10대 때 절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이쁜 여자를 보면 결혼하고 싶고 재산도 쌓고 싶고 내 능력을 펼쳐보고 싶은 번뇌가 생기더군요. 특히 1970~80년대에는 군인들이 학생을 의문사 시키고, 구타하는 모습을 보고 무력감을 느껴 퇴속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를 생각했죠. 편한 삶을 버리고 군중과 함께 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선스님은 석가모니에게서 왕의 삶을 버린 ‘위대한 버림’, 6년 동안 약조건에서 수행한 ‘위대한 정진’, 받은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위대한 회향’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힘줘 말했다.

“4·19부터 5·18 등 그동안 국민들은 정권을 여러번 교체해줬지만 정치인들은 결국 실망만 안겼습니다. 임으로는 국가보안법, 노동·교육 악법을 철폐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오히려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 모습이었죠. 가끔 정치인들이 찾아오면 따끔하게 꼬집습니다. 정치는 용광로와 같아서 일단 그 속에 들어가면 처음 생각들이 티끌처럼 녹아버리죠. 누군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백양사는 1년 예산 10%를 지역 사회에 기부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지선 스님은 “한때는 종교무용론을 생각한 적이 있다”며 “권력과 부에 밀착한 종교가 과연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곤 했다”고 말했다.

수직적인 구조에서 성직자가 일방적으로 종교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안된다는 의견이다. 백양사는 최근 수평적으로 4부대중(비구·비구니·남신도·여신도)이 모두 운영에 참여하는 수행공동체를 시도 중이다. 굳이 스님이 아니더라도 일반 신도가 예불을 모시고, 목탁도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선 스님은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절은 누구나 예불을 드리고 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촛불을 든 사람들을 보고 서용승님이 말했던 ‘참사람’ 운동이 저절로 펼쳐지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에 옮기다 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불씨가 광야를 불태우리라는 말이 있듯이 더디게 가는 역사를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불행 이면에 숨은 희망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김홍희기자 kimhy@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 한국화가 권인경·임남진 신년기획전

광주롯데갤러리 20일~3월1일



임남진 작 '장막도'

권인경·임남진 한국화가가 광주롯데갤러리에서 신년기획전 'The room ; 사색의 공유'를 20일부터 3월1일까지 연다.

두 작가는 한국화 장르의 형식을 넘어서 주제성과 섬세한 감성을 현대적으로 녹여낸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채색화 기법을 통해 주로 풍경을 담아내는 권 작가는 오래된 고서 파편을 플라주 기법으로 작품에 담는다. 주택, 바위산, 강, 아파트 등 작품 'Heart-Land' 속 풍경들은 원근과 사실성을 배제해 왜곡시키며 안식처를 상징한다.

임 작가는 감로탕화 대작과 함께 책가

도, 상사화 시리즈를 비롯해 최신작 '스틸 라이프'(Still Life) 연작을 전시한다. 포장마차, 상갓집 풍경, 작가의 작업실 등 정지된 프레임을 통해 의미 없어 보이지 않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일상을 담담히 풀어낸다.

홍익대 동양화과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권씨는 서울·파리 등에서 개인전을 10여회 열었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임씨는 2013 제19회 광주미술상, 2012 하정웅 미술상 등을 받았다.

한편 갤러리는 운세 뽀끼, 연하장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한다. 문의 062-221-1807. /김홍희기자 kimhy@

## 전남대병원 갤러리 박주하 초대전

내달 4일까지 20여점 선봬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서양화가 박주하 초대전을 2월4일까지 병원 1동 CNUH갤러리에서 개최한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산과 꽃,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어릴 적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담아낸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박 작가의 작품은 색감과 형태를 적절하게 배치하며 점묘법으로 사물을 단순화 시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작품 '—童(일동)은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들에서 뛰놀았던 오래된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 또 '氣(기)는 붉은 태양을 중앙에 그리고 아래에는 나무, 위에는 달과 까치를 등장시켜 토속적인 정감을 묘사했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박씨는 전라남도 미술대전 특선, 목우회 공모전 특선, 국전 입선,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등 다수 상을 받았고 개인



'氣'

전 18회, 단체전 140여회를 가졌다. 현재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전남·광주 미술대전 심사위원, 조형21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0-5104. /김홍희기자 kimhy@kwangju.co.kr

박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모·정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학·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